



SK 사옥 전경. /SK

자산 팔아 10조 확보 AI·로봇 중심 재정비

리밸런싱 속도내는 SK

SK(주)가 지난해부터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정비를 위해 구조조정과 계열사 매각을 진행하면서 리밸런싱(사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SK는 확보한 유동성으로 미래성장사업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에 추가 투자해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 계열사들이 자산 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열사 매각 완료한 ‘10조 실탄’ 비핵심 털고 미래산업 집중투자 사업 재정비로 재무 안정화 박차 유일로보틱스로 휴머노이드 도전

SK는 최근 1년 사이 SK스퀘어 크래프톤 지분 매각(2660억원)을 시작으로 ▲SK렌터카(8200억원) ▲SK엔펠스 파인세라믹스 사업부(3303억원) ▲SK엔펠스 CMP패드 사업부(3346억원) ▲SK넥실리스 박막 사업부(950억원) ▲SK스페셜티(2조6000억원) 등을 처분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 총 4조4459억원이다,

이외에도 SK그룹은 ▲SK실트론(예상 매각가 3조원)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리뉴원·리뉴어스(2조원) ▲SK오션플랜트(5000억원) ▲서울공항리무진(580억원) 등도 매각 대상에 올라 있다. 매각이 성사되면서 SK그룹은 추가로 5조5000억원이라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계열사 매각으로만 1년 사이 10조39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SK가 리밸런싱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재정비를 통한 재무안정화다,

SK는 그동안 각종 인수합병(M&A) 및 투자 등을 통해 외형을 키우면서 중복된 사업이 발생했고, 덩치에 비해

실적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실제 SK그룹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124조6904억원으로 2023년(128조7984억원) 대비 3.19% 줄었다. 영업이익은 2조3552억원으로 2023년(4조7539억원)대비 50.46% 급감했다. 부채비율은 2023년 말 145%에서 지난해 110%대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무부담이 SK를 짓누르기 했지만 확보한 유동성으로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밸런싱을 통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방대한 사업영역을 미래 성장 산업인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플랫폼 등으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는 유일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로봇 기술의 정수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공장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범용인공지능(AGI) 기반의 휴머노이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로봇시장 진출은 최근 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 역시 평소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그룹의 미래 주력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올해 자체 사업 및 비상장 자회사 실적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자산 리밸런싱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부문의 비상장 자회사와 자체사업 실적이 개선되고,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효과가 더해져 전반적인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SK 관계자는 “당분간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속도감 있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준금리 동결... “美 관세 여파 지켜봐야”

한은 금통위, 금리 연 2.75% 유지
트럼프 관세정책에 불확실성 증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면>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 3.5%였던 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p)씩 내린 뒤, 올해 2월 한 차례 더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속도에 제동을 건 이유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칠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는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4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90일 유예와 협상카드를 꺼내든 만큼 시간을 두고 그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미 관세정책의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라 전망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하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변수도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직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조정 해프닝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3만2000호(1월)에서 6만 호(2월)로 늘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한번 늘어난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4~5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거래량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이후 둔화됐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달러 가치 올들어 8% 넘게 폭락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가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40년 만의 최악의 기록을 보였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6일(현지 시간) 전장 대비 0.77% 내린 99.38을 나타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최저치다.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달러인덱스 하락률은 7.69%로 1995년(-7.88%) 이래 40년 만에 최악이다. 16일에도 달러화가 급락해 올해 연중 하락률은 8.5%로 커졌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년연장·직무성과급제 ‘뜨거운 감자’

대선 앞두고 정년연장 여야 공감대
직무급제는 노동계 반발 극심 예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6·3 조기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년연장과 직무성과급제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임금 체계에 갈을 대는 주제인 만큼, 정치권·노사의 이견이 커 21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의 입장이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연장은 고령화·저출생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법정 정년 60

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2033년부터 60세 퇴직자는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직무성과급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돼 있다.

임금체계 유형은 2023년 6월 기준(복수응답)으로 호봉급(근속·연공급)

12.7%, 직능급(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9.4%, 직무급 8.9%, 기타 기준 13.3%, 무체계 64.0%였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호봉급 사용률이 12.4%에 불과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54.4%로 큰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지며 논의가 멈춰선 바 있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한 대통령 권한대행 “APEC 정상회의... 한 치 오차도 없도록 만전 기해달라” /사진 뉴시스
▲정부, 수계관리기금 위법·부정 적발... 농지보전부담금 922억 누락 등

▲한·네덜란드 3차 경제공동위 개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더 강화”
▲국방부, 대선 앞두고 전 군에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 하달

▲제주도의회, ‘5월 임시회’ 안 연다... ‘6·3 대선’ 고려해 변경
▲군, 광자기술·인공지능 활용해 멀리있는 소형 드론 탐지·식별한다

하원의원 영입에 사회공헌 강화… 현대차 “美 시장 지켜라”

미국 상호관세 돌파 전략

드류 퍼거슨 전 연방하원의원 선임
미국 정부·의회와 소통 총괄 역할
‘GPO’ IRA 보조금 축소방침 대응
뉴욕 오토쇼에 2000평 전시관 차려
팰리세이드 등 차량 28대 선배고
소아암 환아 누적기부 2.8억 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이 18일 개막하는 2025 뉴욕 국제오토쇼(뉴욕 오토쇼)에 대규모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북미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로 차값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미국 연방하원 4선 의원을 영입하는 등 대관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신형 시장과 달리 대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은 미국 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일 단행한 수입차 25% 관세 부과 완화를 위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류 퍼거슨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5월 1일자로 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에 선임한다. 드류 퍼거슨 선임 HMG워싱턴사무소장은 앞



현대자동차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디 올 뉴 팰리세이드를 북미에 최초로 선보였다. 이상엽(왼쪽부터) 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DO(글로벌디자인본부장) 겸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사장, 올라비시 보일 현대차 북미권역본부 제품기획 및 모빌리티 전략담당 Senior Vice President, 호세 무노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 CEO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으로 미국 정부·의회와 현대차그룹 사이의 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위치한 글로벌 대관 조직인 GPO(글로벌 전략실)와 HMG워싱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미국 관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정부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통’ 호세 무

노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현대차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며 북미 시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2023년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 역으로 영입한 뒤 지난해 말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임명했다.

현대차그룹이 대관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물린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17일 뉴욕 오토쇼가 진행되는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 가장 큰 규모인 약 7265㎡(약 2200평)의 전시관을 차렸다.

현대차는 뉴욕 오토쇼에서 ‘디 올 뉴 팰리세이드(팰리세이드)’ 등 차량 28대를 선보인다. 팰리세이드는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차세대 하이브

리드 시스템을 갖췄다. 북미 시장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현대차는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팰리세이드 XRT Pro’도 공개했다.

또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오픈 온 휠스’ 캠페인의 27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2700만 달러를 추가 기부했다. 이에 따라 누적 기부금은 2억 7700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기아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EV9 나이트폴 에디션·K4해치백·EV4 등 신차 3종을 포함, 총 21대 차량을 전시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EV9 나이트폴 에디션’은 기아 전동화 라인업의 고급스러움과 정체성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아 주력 SUV들인 ▲셀토스 ▲스포티지 ▲텔루라이드에도 적용돼 있다.

또 북미 충전 표준(NACS)을 채택해 테슬라 수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아는 올해 2분기부터 EV9 나이트폴 에디션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며 이후 점진적으로 판매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는 기아의 첫 번째 전동화 세단 EV4를 북미에서 처음 선보이는 동시에 EV4 해치백 모델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상법개정안·내란특검법 등 7개 법안 폐기

국회 본회의의 재표결 8건 중 7건 부결

국민의힘 “재표결 법안 부결 뜻모아 우리당 108석, 악법 폭주 안전장치”

민주당 “동일 시안, 정부 추진땐 찬성 특정 정당 추진땐 반대, 신뢰 없어”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안 등 행정부 수반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한 결과, TV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불인 법안은 내란특검법안(윤석열 정부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군특검법(명태군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총 8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 부결에 뜻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당의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악법 폭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부결의 뜻을 모았다.

이날 경영계의 관심을 모은 건 법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군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동의한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TF(테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갹감 빼먹듯 빼먹고, 하루 아침에 우량주가 불량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사안도 정부가 추진하면 찬성하고 특정 정당이 추진하면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본회의의 표결 때는 상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재표결 때는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계기로 찬성 표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했다.

다만, 경영계에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내내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올해 공공기관서 2.4만명 신규 채용”

최상목 부총리, 청년 채용 간담회
“청년 일자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
정부, 차질없는 목표 달성 뒷받침”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업·준(準)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청년 채용 규모를 2만 명 이상으로 잡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 고용난 완화’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일자리는 청년 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공기업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는 곧 복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공공기관이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민간 기업의 수시 채용 확대 추세를 언급하고, 경력 축적을 위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인턴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청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 채용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청년 취업 희망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신입직원 합격사례 공유, 취준생 간담회 등 취업정보 제공 ▲청년인턴의 직무경험 확대 ▲청년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청년들의 건의사항에 공감을 표하고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이창용 “1.5% 성장률도 위태… 금리인하 속도 조절 필요”

〈한국은행 총재〉

대내외 환경 급변… 불확실성 우려
금통위원들, 4개월내 인하 의견
이 총재 “내달 인하 가능성 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다. 밝아질 때까지 스피드를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한층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히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 경제성장률 예상치 하회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예상치(1.5%)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2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췄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당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이렇게 오래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이 예상한 시나리오보다 강한 상황이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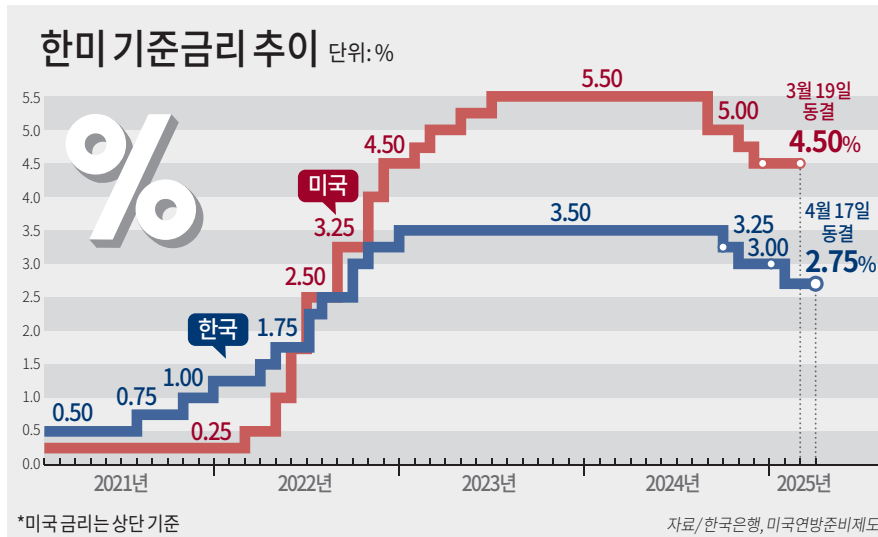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2%로 낮췄다. 그러나 현재 1분기 성장률은 0.2%를 밑도는 상태다.

2분기 성장률 전망치 0.8%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내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될 수 있지만, 수출 부문은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로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줄면서 우리의 대(對)중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2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2분기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5월 금리인하 가능성”

그럼에도 이 총재는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기대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16.0원으로



출발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달 10일 1482.90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414.20원을 찍었다. 6일 만에 환율 변동폭이 68.7원에 달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순매도할 수 있어 외환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간의 보복관세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적잖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관세조치를 할 경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갈등이 심화될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 여파만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나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이달 미국은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동남아,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부과 정도가 확실시돼야 여파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은 모두 4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으니, 5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복현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금융상황점검회의
관세대응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가동
이 원장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 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미 관세 충격으로 인한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을 진단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겹쳐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중심의 경제·금융·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의 신호로도 해석된다”며 “관세 협상 난항과 글로벌 신뢰 약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변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총괄, 시장점검, 산업분석, 권역별 대응반으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국내 기업, 금융시장 전반의 영향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특히 “관세 여파로 주문 급감,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협력업체, 산업단지 인근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운전자금, 금리우대, 중장기 투자자금 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권이 충분한 자금지원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및 유동성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취약한 가계, 소상공인, 기업의 연체 확대가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후 임원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일시 2025년 5월 9일(금)~5월 11일(일)
장소 영양군청앞마당 및 일원

산나물의 고장 영양에서 맛 보는 봄의 선물

일월산기슭에서 자라는 산나물은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맛과 향기가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무침, 부침, 찜으로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 올랐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으며 소중한 약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산불피해 빠른 회복을 응원합니다

영양군에서 정성으로 준비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산나물과 봄의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YFTF 영양축제: 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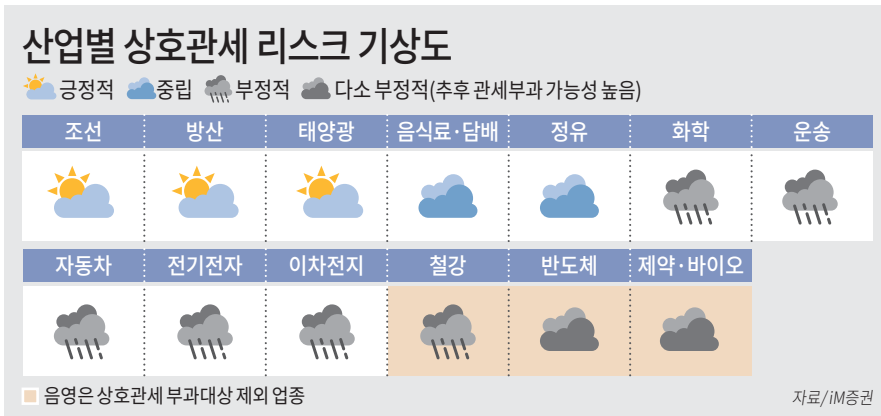
산업계 90일 유예 희비… IT·바이오 ‘흐림’, 조선·방산 ‘맑음’

반도체·바이오 ‘품목별 관세’ 우려
자동차·철강업계도 타격 불가피
조선·방산은 특수 수요처로 선방
태양광, 동남아 생산기지 덕 반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출품 대부분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국내 산업계 대부분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제약·바이오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조선, 방산, 태양광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제약 바이오 초비상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반도체 업체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금요일(4월 11



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반도체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올 2월 25% 관세가 언급된 만큼 추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iM증권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품별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업체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정도는 해외 경쟁사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한국 업체 반도체에 대한

25% 개별 관세 부과 가정 시, 한국 반도체 업체 매출을 4.3% 하락 시키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는 최악은 피했지만, 별도 관세의 영향권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면제가 “영구적이지 않다”며 한두 달 내에 반도체, 스마트폰, 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들 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협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iM증권은 “관세 적용 시 단계적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 기업의 수혜가 전망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관세

에 따른 의료체계 재편으로 현 미국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인 오바마케어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시스템 전반의 압박에 최악의 경우 보험사 시장 철수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철강 등 ‘바람앞 등불’

철강, 자동차, 화학, 운송, 전기전자, 2차전지 등도 트럼프 리스크의 영향권이다 특히, 품목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철강 업계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업계 최대 고객이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708억달러) 가운데 미국 비중은 절반가량인 49%(347억달러)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82억달러다. 고율 관세 부과 땐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당연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업계는 미 증유의 위기 한복판에 들어섰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자동차 부품은 이미 다수 품목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으로 분류된 데 이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까지 받는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최종 관세율은 50%를 웃돈다.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

한 수준이다.

타이어업종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미국이 베트남에 46%라는 관세를 부과기로 하면서다. iM증권은 타이어업종에 대해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의 미국매출 중 38%가 인도네시아, 금호타이어는 76%가 베트남에서 수출되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조선과 방산, 태양광 섹터는 관세폭탄의 큰 불뚱은 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금융 지원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선·해양·물류 산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지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에 나서면서 국내 조선사와 방산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수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견기업, 통상 리스크에 ‘긴급대응’… 환율·시장 다변화 승부

중견련, 관세전쟁 전략 세미나

경쟁력 품목 중심 美 시장 진출 모색
수출 17.8%, 제조 중견社 70% 영향
관세율 조정·비용 절감 정부에 건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들도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 관리, 대체 시장·생산지 마련, 정보 공유, 정책 지원 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 ‘제 30차 중견기업위원회’를 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중견기업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견련

정인교 본부장은 강연에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

(one team, one voice)’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중견기업들이 통상 변화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상의 중견기업위원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긴밀한 정보 공유 ▲세액공제 등 생산코스트 절감 지원 ▲대체 수출시장 확보 등 단계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전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

로 ‘중견기업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환율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한미 금리차, 내수 부진, 대내 정치 불확실성 등 추가적인 요인으로 여타 국가들보다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 추이를 살펴 공격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채 관리나 재무건전성 강화 등 안정성 기반을 강화해 실기의 여지를 줄이는 한편, 전자제품, ICT, 배터리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견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17.8%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견기업 가운데 70% 이상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중견기업의 가장 큰 수출 애로로 지목될 만큼 환율은 기업의 단기적 손익은 물론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미국의 중국 배제에 따른 품선효과와 명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업종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인교 “2분기부터 타격 본격화… 수출기업 비상지원 돌입”

산업부,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자동차·기계 부진에 대미 수출 2% ↓
“관세119·보험료 할인 현장 맞춤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가 2분기 수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

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 감소한 1598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26%)·컴퓨터(+92%)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일반기계(-22%)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억달러(-2.0%)가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12%) 수출 감소로 석유화학(+3%)·무선통신(+4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88억달러(-6.7%)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34%), 선박(+31%) 등의 호실적으로 285억달러(+6.4%) 증가했고, 대중동(48억달러, +3.4%), 대인도(46억달러, +0.9%)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수출지원기관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 무역사업본부장은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보험한도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 수출금융으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관세119를 통해 수출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금값 한돈 65만원… 3개월 새 22% ↑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일파만파’
국제 금 가격, 온스당 3346.4달러

국제 금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100달러 넘게 뛰어올라 온스당 3300달러를 넘겼다. 원화 환산 가격으로는 한 돈에 5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국내 금 현물 가격은 한 돈에 65만원을 넘겨, 연초 대비 20% 넘게 상승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06달러(3.27%) 급등한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346.4달러(약 47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초 가격인 2901.1달러와 비교해선 15.3%나 올랐다.

같은 날 국내 금 가격 증가는 g당 15만1454원을 기록했고, 실물 금(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거래 가격도 한돈(3.75g)에 65만원을 넘겼다. 올해 초 국내 금 실물 가격은 1돈에 53만원 수준이었는데, 3개월 만에 12만원(22.6%)나 뛰어 오른 것이다.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5개 국가(한국, 일본을 비롯한 56개의 개별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상호관세 부과 후 13시간 만에 90일 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45%의 징벌적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MAIN
CHAIN
AIM
AGAIN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의 중심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써 온 SK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해
미래 산업을 정조준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李 ‘K-방산’, 김경수 ‘제조업 위기’, 김동연 ‘내수침체’ 집중

민생 살피는 민주당 경선후보

李,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방산산업 위상·선택적 모병제 언급

김경수, 스웨덴 말뚝시 시장 만나
韓 제조업 위기 탈출 해법 논의
김동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등 충청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 유성구 소재 ADD에서 임직원 40여 명과 만나 방산 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국방 산업 발전에 대한 ADD의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국방비를 대규모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투자해야겠지만,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어떨겠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며 “(정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년 중 일부)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이들이 전문 무기 장비 체계를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ADD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청년들이 과거처럼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전역 이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해주는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스웨덴 말뚝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K-방산 정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의 R&D (연구개발) 세액 감면 ▲방산 스타트업을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함께 발표한 충청 지역 공약 발표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4·19학생혁명기념탑에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뚝시 시장을 만나 탄소 중립(넷제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스웨덴 말뚝시는 조선 산업이 발달했었지만, 신흥국의 조선 산업이 부상하

면서 쇠락을 겪었고 이후 교육·연구 혁신과 유럽연합(EU)의 지원 아래 문화 도시로 탈바꿈했다. 김 후보 측은 한국의 말뚝시의 지혜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 탈출의 해법을 얻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

김경수 후보는 “말뚝시가 제조업에서 지식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며, 이는 비단 환경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일정을 소화하며 내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충북 서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저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어려운 계층이 소비를 함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월권’에 제동 걸린 한덕수, 차출론에도 타격

한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임명절차 중단
‘韓 출마’ 부정적 의견도 과반 넘어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뒤편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견으로 인용되면서 현재 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선 차출론에 대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 차출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차출론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난 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오랜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 정책 위기를 타개할 경제 관료로도 평가 받고 있다.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과의 최종 단일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덕수 차출론’자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차출론자’였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캠프에 전격 합류해 김문수 후보를 최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후보로 만들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협상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뒤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행위는 ‘한덕수 대망론’이 일고 있는 분위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찬물을 끼얹었다. 한 권한대행 측이 현재에 두 후보자의 지명 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각하 처분을 요구해 “말장난 하나”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명 행위가 아닌 발표였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어서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한 것도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도 없이 현재 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현재의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었다”며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관리와 관세협상 예비협의를 전담할 거면 당장 불출마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관세협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노획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는 조사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바람직하지 않다(38%)는 의견보다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1차 경선토론회 대진표 완성

A조,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B조,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이 17일 8명의 21대 대선 경선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미디어 데이를 열고 1차 경선 토론회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어 데이’를 개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 대진표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가 A조로 청년미래를 주제로 19일에 토론했다.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는 B조로 사회통합을 주제로 20일에 토론했다.

각 주자들은 1분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vs “단계적 조정”

(국민의힘)

(민주당)

» 1면 ‘정년연장·직무성과급제…’서 계속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를 실시하고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흔히 통용되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 유연화’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연내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 연장에 소득공백기를 매우고 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는 노사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중장년층의 임금을 낮출 수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놀이공원에 숙박 할인까지… 카드사, 내수 살리기 총력전

국민카드, 서울랜드 할인행사 진행
현대카드, 더플라자 등 3곳 할인 등
가정의달 전방위 소비촉진 마케팅
‘동행축제’로 전통시장 할인도 병행

신용카드사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할인 행사를 준비하는 등 분주하다. 카드업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여행 및 쇼핑 부문에서도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서울랜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6월 8일까지 KB페이로 서울랜드 파크이용권을 결제하면 최대 57.9%를 할인한다. KB국민카드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어 KB국민카드(유니온페이)로 아고다를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최대 100달러까지 아낄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신용카드사와 소상공인 상생' 이미지.

현대카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내 제휴 호텔 프로모션 이용 시 객실을 할인한다. 제휴 호텔은 서울에 있는 더플라자 등 3곳이다.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만큼 국내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눈여겨 볼 만 하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는 L7호텔과 롯데시티호텔에서 객실 할인가를 제공한다. L7호텔은 명동과 강남, 홍대, 해운대점 등 총 4곳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롯데시티호텔은 ▲마포 ▲김포공항 ▲구로 ▲명동 ▲제주 등 5곳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여행자보험 혜택을 전면 내세웠다. 삼성개인신용카드 이용객은 보험료의 100%를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다. 이어 신한카드는 내달 31일까지 '참좋은여행'에서 구매한 상품을 최대 5% 할인한다.

롯데카드는 쇼핑 영역을 강화했다. 디지로카 쇼핑탭 내 '엣지(Edge)'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최대 50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할부특화 카드인 '로카 나누기' 카드에 가입하고 연간 600만원 이상 이용하면 연회비를 면제한다.

하나카드는 여행에 초점을 맞춘 행사를 대거 발표했다. 유니온페이 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하면 20%를 캐시백하며 일본 관광 티켓을 신규 개점했다. 이 밖에도 부산 씨라이프 입장권 30%, 하이원 리조트와 웰리힐리파크 객실을 각각 최대 78%, 73%씩 할인한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국내외 관광 관련 행사를 강화하는 것은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이다. 신용카드가 주요 소비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것. 이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하락했다. 22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00년 통계청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업계는 해외여행 관련 행사에 초점을 맞췄다. 지주 계열 카드사 4곳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

하면서다. 앞으로 여행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을 대거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는 5월과 9월, 12월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행축제를 진행한다. 주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이 모두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특화카드 및 관련 마케팅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 카드사 또한 카드론 등 대출을 통한 수익성 확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내수 활성화를 통해 카드사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DL이앤씨, 한남5구역 단독입찰… 96%가 와이드 한강뷰

한남 뉴타운 최고입지, 한강 조망권
아크로 한남으로 새 주거가치 제시
특화설계로 한강과 시각연결 극대화

DL이앤씨가 서울 한남5구역에 압도적인 한강뷰와 중대형 평형 위주의 특화설계를 제시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총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대어'로 주목받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지난 15일 단독 입찰했다.

한남5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4만1186㎡ 부지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정비 프로젝트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한남4구역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는 "한남 뉴타운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와 한강 조망권을 갖춘 한남5구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DL이앤씨와 아크로 브랜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



'아크로 한남' 투시도.

/DL이앤씨

이라며 "단순한 수주를 위한 제안이 아닌,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수주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타 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고 빠른 사업 진행으로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는 10여 년 전부터 가장 먼저 한남5구역의 문을 두드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니즈는 물론 지역의 헤리티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하이엔드 주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주거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한남5구역에 제안한 단지명은 '아크로 한남(ACRO Hanna m)'이다. 아크로한남은 지하5층~지상22층, 총 44개동으로 아파트 2401세대, 오피스텔 146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조합 세대수의 108%에 달하는 총 1670세대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다. 여기에 한강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와이드 한강뷰'도 1480세대 확

보했다. 이는 조합 세대의 96%에 달해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와 '아크로 리버뷰' 등 한강 조망 특화 단지를 성공적으로 선보여온 DL이앤씨의 배치 설계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며 "스텝테라스 하우스와 2면 개방 파노라마 하우스, 그리고 2면 개방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통해 한강과의 시각적 연결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가두리 펌핑 수법 사용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 고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뒤,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혐의자들은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으로,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혐의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및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거래소 내에서 거래유량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

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것을 악용했다.

혐의자는 거래유량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있으니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

우리은행-무역정보통신 EDI 이용 수출입기업 수입업무증빙 간소화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수입업무 증빙자료 첨부파일 전송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수출입 기업은 수입업무 진행 시 ▲수입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등 업무를 위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우리은행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수입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BNK경남은행 하동 산불피해복구 지원성금 2억 기탁

BNK경남은행은경상남도예산청·하동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청을 방문한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산불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BNK경남은행을 비롯한 BNK금융그룹 계열사가 마련한 성금 2억원은 산불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달 22일 임직원 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 파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 긴급 지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승진 기자

종합상사, 관세 등 대외변수 진땀 사업영역·진출국가 다변화 나서

에너지·인프라 등 실물 투자 확대
해외시장 개척… 수익개선 도모
트레이딩, 고환율 반사이익 기대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신사업 확장을 꾀하던 종합상사들이 미국발 고율 관세 와 경기위축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직면하면서 고전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트레이딩 부문은 고환율 기조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신사업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에너지 등 실물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양방향에서 돌고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종합상사들은 대외시장 변수 속에서도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하며 수익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사업계의 1분기 실적이 비교적 견조할 것이라는 할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환경 변화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발전사업 전력 판매 단가는 지난 2022년 224원·kWh에서 지난해 160·kWh로 하락했다. 2년 새 약 28.6%가 낮아진 수치

다. 전력 시장 가격 하락과 함께 신재생 수요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도 화학, 철강, 에너지, 소재 등을 아우르는 상사부문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지난 2022년 46.8%였으나 지난해에는 30.87%로 줄었다. 철강과 화학 제품의 글로벌 시장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역·트레이딩 부문도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 여파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높은 관세로 제품 가격이 치솟으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각 사는 사업 영역과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 전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회사는 미얀마 LNG 가스전 채굴 사업을 비롯해 LNG 벙커링 및 LNG 선박 시운전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오는 5월 중에는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한 174K CBM(큐빅미터)급 운송선

을 인도반아 트레이딩용 LNG조달에 활용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트레이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삼성 C&T 재생에너지 유럽 법인’을 설립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환율 기조가 트레이딩 부문의 수익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수익을 통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사업계는 단순 상품 중개에서 벗어나 에너지나 인프라 등 실물 기반의 사업 개발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량 프로젝트 발굴과 현지 사업 역량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스마트폰 왕좌 수성

출하량 기준 글로벌 1위 기록
판매량은 애플이 근소하게 앞서

삼성전자가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1위를 기록하며 스마트폰 ‘왕좌’를 지켰다. 반면 판매량 기준에서는 애플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양사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애플이 19%, 중국의 샤오미(14%), 오포(8%), 비보(8%) 순이었다. 출하량은 제조사가 유통망에 공급한 물량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사 실적을 평가할 때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와 신형 A 시리즈 등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분기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반면 애플은 이례적으로 아이폰 신 모델을 1분기에 출시하며 대응했지만, 출하량에서 삼성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14일 ‘올해 1분기 판매량 점유율’ 자료를 내고 1분기 애플의 판매량이 19%로 삼성전자의 판매량(18%)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판매량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치를 의미해 추정 방식에 따라 기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삼성스토어 강남점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S25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다른 시장조사업체인 IDC와 카날리스토도 각각 삼성의 점유율을 19.9%, 20%로 집계하며 출하량 기준 1위를 확인했다.

카운터포인트 박진석(Jene Park) 책임 연구원은 제조업체별 실적에 대해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와 새로운 A 시리즈 출시로 출하량이 증가하며 2025년 1분기 다시 1위를 차지했다”며 “애플이 1분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6e는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통상 1분기는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하는 시기로, 신제품이 없는 애플을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는 시기다.

/이혜민 기자 hyem@

현대차그룹,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2025 월드카 어워즈

EV3·캐스퍼 일렉트릭 ‘2관왕’
전동화 기술력, 첨단사양 등 호평

현대자동차그룹이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석권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16일(현지시간)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2025 World Car Awards)’에서 6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아 EV3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WCOTY)’에 선정됐으며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티)은 ‘세계 올해의 전기차’로 뽑혔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텔루라이드의 수상을 시작으로 최근 6년간 다섯 차례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다.

특히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전용 전기차가 4년 연속 수상에



월드카 어워즈 싯다르트 비나야크 파판카르 의장(왼쪽부터), 스티븐 센터 기아 미국법인 최고 운영책임자(COO), 월드카 어워즈 엔스 마이너스 심사위원이 세계 올해의 차 (EV3) 수상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동화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기아 EV3는 총 52개 차종이 경쟁한 ‘세계 올해의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BMW X3 등과 치열한 접전 끝에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됐다.

EV3는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전략

을 상징하는 전용 콤팩트 SUV로, 우수한 전동화 기술과 첨단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호평받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전기차 포르세 마칸 일렉트릭을 제치고 ‘세계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서 수상하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 석권

점유율 21%… OLED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세계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모니터 부문에서도 2년 연속 1위에 오르며 고성능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44헤르츠(Hz) 이상) 시장에서 금액 기준 21.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2019년 처음 1위에 오른 이후 6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27.5%의 점유율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OLED 모니터 시장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4.6%의 점유율로 OLED 모니터 시장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지난해 OLED 모니터 전체 출하량은 124만 대로, 2022년과 비교해 약 16배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7형과 32형 신제품을 중심으로 OLED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한국타이어, 루시드 모터스에 OE 공급

(신차용 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17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 모터스의 대형 전기 SUV ‘루시드 그래비티’ 북미 판매 차량에 전기차 전용 사계절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이온 에보 AS SUV가 장착되는 루시드 그래비티는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순수 전기 그랜드 투어링(GT) 모델이다. 최대 828마력의 높은 출력을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5초만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루시드 모터스와의 협력을 통해 고성능 대형 전기 SUV에 최

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전용 타이어를 개발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의 특화 기술로 저소음, 전비 효율, 그립력, 낮은 회전 저항, 마일리지 등의 성능을 구현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본사 ‘테크노플렉스’와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을 필두로 한 글로벌 5개 R&D 센터, 아시아 최대 규모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선제적 기술 확보에 매진하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티웨이항공, 유럽 운항 심사·점검 실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서 운영실태 확인

티웨이항공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 현황 전반에 대한 품질 심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 심사는 티웨이항공의 장거리 유럽 노선 중 하나인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과정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여객 운송 품질 점검은 공항 업무 수행 인력의 적정성과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뉴얼

과 업무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위험물 규정, 비상구열 제한 승객 등 관련 규정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화물 운송 품질 점검에서는 조업사 시설과 장비의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와 화물보관 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살폈고, 관련 직무 교육과 화물 처리 절차가 국제 규정과 항공사 자체 규정에 부합하는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물품 반입 관련 보안 검색과 사전 차단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CJ대한통운 “물류현장 반복·단순 작업, 로봇이 대신한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착수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술 실증
자율판단 ‘에이전틱 AI’ 탑재 예정
올해 말부터 물류센터 시범 투입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물류산업 현장에서 일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인간과 로봇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모습이다.

CJ대한통운은 물류용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족보행 로봇, 사족보행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이족보행 플랫폼을 양산화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 04. 16 (수) 장 소 : CJ대한통운 온라인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CJ대한통운 김정희 TES물류기술연구소장(왼쪽)이 레인보우로보틱스 허정우 기업부설연구소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물류는 같은 공정을 반복하는 제조업과 달리 매일 수많은 종류의 상품을 다뤄야 해 자동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형 자동화 설비 대신 사람처럼 판단하고 동작하는 휴머노이드가 물류산업에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설비에 맞춰 물류센터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도 넓어

유연성과 확장성에서도 장점이 많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이동형 양팔로봇, 자율이동로봇(AMR) 등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물류 환경에 적합한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CJ대한통운은 물류 작업을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다.

양사는 AI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수집을 통해 로봇 행동 알고리즘을 완성한 뒤 올해 말부터 현장 실증 프로젝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협력 성과물은 주요 물류센터에 순차 적용하며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CJ대한통운 김정희 TES물류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는 AI 로봇을 물류 현장에 투입하는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물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K-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에도 참여한다.

이 연합은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을 위해 로봇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로, CJ대한통운은 로봇수요기업으로서 기술 적용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전기 없이도 똑똑하게” ‘무전원 정수기’ 선포

코웨이가 친환경 무전원 정수기 ‘스위치 정수기(P-2200N)’를 선보였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스위치 정수기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주방 구조에 맞춰 공간 제약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제품은 지난 3월 열린 국제 물산업박람회 ‘아쿠아텍 암스테르담 2025’에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스위치 정수기는 카운터탑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인테리어에 맞춰 가로형 또는 세로형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가로 11cm의 슬림한 디자인으로 좁은 주방에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추후 싱크대 아래에 본체를 배치해 주방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빌트인 타입 설치 키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제품은 별도의 코드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원 정수기로 설치 위치의 제약과 전기세 부담을 해소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출 핸들을 돌려 출수량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대한상의 “기업 짓누른 10년 규제… 숨통 죄는 노동·환경”

기업부담지수 105.5 기준치 상회
조세는 줄고 규제 부담은 더 커져
노동규제 체감도 112로 최고 수준
“플랫폼 다 막혀 성과 어렵다” 토로

지난 10년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직된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나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지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상



대한상의 회관 전경. /대한상의

회하고 있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중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부담은 102.9로 10년 전(88.3) 대비 크게 높아졌다. 실제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금껏 낮은 우리 노동시

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지은 코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며 “경쟁국들은 빠르게 혁신해 가는데 우리는 규제나 기득권 반발 등에 막혀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교원 웰스, ‘슈퍼브랜드 데이’ 진행

오늘부터 20일까지 프로모션
정수기 4종 최대 88만원 혜택 제공

교원 웰스(Wells)가 G마켓과 손잡고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슈퍼브랜드데이를 연다.

17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가정의달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을 앞두고 정수기 구매를 고민 중인 고객들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직수형 냉온정수기 신제품 ‘슬림원’을 포함한 인기정수기 4종을 최대 88만원 상당의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한 뼘 크기에 차별화한 정수 성능을 갖춘 슬림원을 12개월간 렌탈료를 반값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5만원 ▲스마일캐시 10만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G마켓 라이브 방송 중 계약하면 제습기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미니맥스 공기청정기’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외에 여름철 얼음 걱정 없는 1kg 아이스룸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멀티쿨링 기능의 ‘슈퍼쿨링 정수기’, 초소형 무전원 ‘미미 정수기’를 특별한 조건에 제공한다. 일부 모델은 제휴카드 및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면 무료 렌탈도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K-디스플레이 中 저가 공세에도 ‘선방’

패널 기업 매출액, 전년비 13.3%↑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집중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17일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패널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44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OLED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363억달러, 액정표시장치(LCD)는 5.9% 증가한 79억달러로 집계됐다.

애플 아이패드에도 OLED가 최초로 적용됐고, 인공지능(AI) 확대로 전력 효

율을 높일 수 있는 저온다결정산화물(LTPO)OLED 수요가 늘어나며 한국 기업의 매출액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OLED 매출 비중이 2021년 69%에서 2024년 82.1%까지 증가하며 OLED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33.1%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8.1%에서 50.8%로 2.7%p 늘었다. 반면 대만(16.7%→14.6%)과 일본(1.7%→1.1%)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규모는 전년(428억달러) 대비 26.2% 증가한 54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승용 기자

/이혜민 기자 hyem@

PURSOL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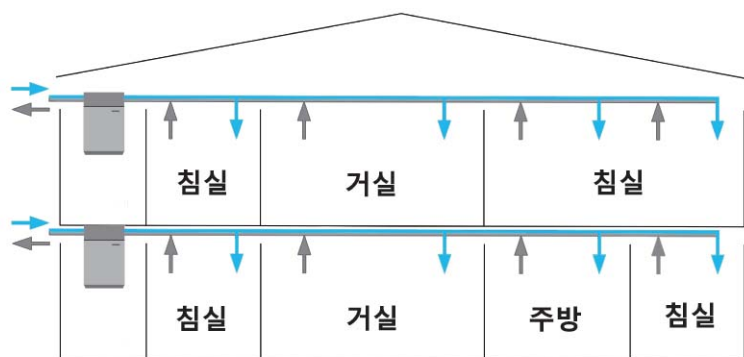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1분 드라마’ 열풍에… 국내기업도 숏폼 인프라 구축 ‘속도’

中 첫 숏폼 드라마 ‘80년대 계모’ 1억위안 이상 수익… 가능성 입증
세로화면 최적화·빠른 전개 ‘특징’
韓, 블루오션 단계… 진입 본격화
KT스튜디오지니, 숏폼 인프라 구축
왓차, ‘숏차’ 론칭… 제작 드라마 공개

숏폼(Short-Form·微短劇, 웨이판 쥐) 드라마가 OTT 미디어 업계의 ‘메기’로 떠올랐다.

숏폼 드라마는 편당 1~3분 이내의 짧은 러닝타임을 특징으로 하며, 기존 드라마에 비해 간결하고 빠른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웹드라마나 유튜브 드라마와 달리 짧은 편수들이 이어져 하나의 시리즈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숏폼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며 한국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생성형 AI 기반 제작 툴 시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중국에서 처음 공개된 숏폼



편당 1~3분에 불과한 숏폼 드라마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한국에 상륙했다. KT 등 기업들은 숏폼 드라마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김서현 기자

드라마 ‘80년대 계모’(제작자 미미 명)는 1억위안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시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숏폼 드라마는 회당 러닝타임이 1~3분에 불과하고, 전체 시리즈는 보통 100화 안팎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세로 화면(9:16 비율)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짧은 시간 내 콘텐츠 소비에 특화돼 있다.

권선징악이 명확하고 전개가 빠른

‘사이다’ 드라마가 주를 이루며, 강한 반전과 갈등 구조를 통해 시청자의 감정 몰입을 유도한다.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가 지난 1월 발표한 ‘제55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숏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4.9% 성장한 504억4000위안(약 9조6000억원)에 달했다.

시청자 수 역시 압도적이다. 2024년

12월 기준, 중국 숏폼 드라마 시청자는 6억620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9.7%에 해당한다. 이는 온라인 음식 배달 이용자 수(5억9200만명)보다 많은 수치다.

현재 한국은 숏폼 드라마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블루오션 단계다. 중국 숏폼 드라마는 북미와 동남아 시장에서 먼저 확산됐으며, 현재는 북미에서도 자체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드라마박스(Dramabox), 넷숏(NetShort) 등 주요 플랫폼이 한국어 자막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내 기업들은 크게 숏폼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과 실제 드라마 제작에 뛰어드는 기업으로 나뉜다.

KT는 기존 IPTV 기반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숏폼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KT스튜디오지니를 ‘숏폼 전문 스튜디오’로 포지셔닝하고, AI 기반 제작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국내의 주요 플랫폼과 약 20편의 공동제작을 협의 중이다.

왓차도 숏폼 드라마 전용 플랫폼 ‘숏차’를 론칭하고, 이달 초 첫 자체 제작 드라마인 ‘러브매직 흥시BAR’를 공개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와 함께 ‘2025 SBA×왓차 숏폼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숏폼 드라마 시장을 K-콘텐츠가 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하며, 관련 법률·경제적 지원과 AI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플랫폼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오창학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숏폼 드라마 제작은 주로 OTT 플랫폼과 독립 제작사들에 의해 이뤄진다”며 “중국 드라마처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전개보다는, K-드라마 특유의 감성적 스토리텔링과 몰입도 높은 연출력을 숏폼 포맷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아이온큐, 양자사업 협력 본격화

양자 협력 대한 후속논의 진행
퀀텀 네트워킹, 양자보안 ‘관심’
양자컴퓨터까지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

SK텔레콤이 미국의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IonQ)와 함께 양자 사업 관련 양자 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소재 T타워에서 열린 양자의 회동에는 IonQ의 피터 채프먼 이사회 회장, 토마스 크레이머 최고 재무책임자(CFO), 필립 파라 기업 및 전략 제휴 담당, 진재형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해 유영상 CEO를 비롯한 SKT 주요 관계자들과 만났다.

SKT는 지난 2월 AI·양자 시대 준비를 위해 아이온큐와 지분교환을 포함한



17일 서울 을지로 SKT 본사에서 유영상 SKT CEO(왼쪽)와 피터 채프먼 아이온큐 이사회 회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T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회동은 양자 협력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회동을 통해 SK텔레콤과 아이온큐는 퀀텀 네트워킹, 양자보안 등의 영역에 양자가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해당 영역에 대한 협력을 꾸준히 강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SKT가 보유한 양자보안 사업 관련 여러 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양자컴퓨터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유영상 SKT CEO는 “아이온큐와의 협력은 SKT가 양자보안뿐 아니라 양자컴퓨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SKT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LG CNS, 美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계약

뉴욕·호건스빌市 등 글로벌 시장진출
전기차 충전소·스마트 가로등 구축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인 LG CNS가 미국 뉴욕시, 조지아주 호건스빌시와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사업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키며 글로벌 공공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 CNS는 최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와 ‘전기차 충전소 및 관제 시스템 구축 파일럿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뉴욕시 산업단지인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LG CNS는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에 실시간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총·방전 관제 시스템과 앱을 설치해 운영한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충전 상태를 점검하고 충전소 예약, 충전소 내 실시간 빈 자리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 CN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이나 건물 내에 있는 다양한 설비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자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티허브 빌딩’을 관제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각종 센서의 원격 제어를 통한 시설물 고장 여부나 건물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건물 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운영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향후 LG CNS는 뉴욕시에 레벨3에 해당하는 초고속 충전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 CNS는 조지아주 호건스빌시와 스마트 가로등 및 관제 시스

템 구축 사업 계약을 맺었다. LG CNS는 스마트 가로등과 관련 인프라를 호건스빌 중심가와 공원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가로등은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IoT 기능을 결합한 도시 기반 시설이다. 조명 제어 기능, 공공 와이파이, 인공지능 CCTV, 환경 감지 센서 등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다.

여러 대의 스마트 가로등을 제어하는 관제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LG CNS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티허브 빌딩’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LG CNS는 스마트 가로등에 기본적인 IoT 기능을 포함해 전기차 충전기와 디지털 사이니지, 비상 호출 버튼도 설치한다. 긴급 상황시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와 연결된다.

앞으로 라그랑주, 웨스트포인트 등 조지아주의 인근 도시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0

AI 기반 설문조사 서비스 ‘SKT AI 서베이’

문항 작성, 결과분석 전 과정 AI 적용

SK텔레콤이 AI 기반의 설문 조사 결과와 그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SKT AI 서베이’ 서비스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SKT AI 서베이는 SKT의 AI·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크게 설문 응답자와 의뢰자 영역으로 구분된다.

SK텔레콤 고객(설문 응답자)은 T멤버십 앱의 ‘미션’ 탭에 들어가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설문에 응하고, T플러스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적합한 포인트는 T멤버십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설문은 SKT가 자체 제작하거나, 기업과 연구기관·소상공인 등 외부 설문 의뢰를 받아 설계한다. 문항 작성과 응답 수집,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에 AI를 적용한다. /김서현 기자



17일 성남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접근성 서포터즈 2기 발대식 단체 사진. /카카오

카카오,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강화 활동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2기 발대식

카카오는 17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남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 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는 시각·청각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50명으로 구성된 이용자 협력체로, 1년 동안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서 발견한 접근성 이슈를 실시간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

다. 이를 통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기 서포터즈는 30명이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접근성 관련 이슈를 제보했고, 카카오 내부 고객센터나 시스템보다 빠른 피드백 루트를 형성하며 실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올해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가이드와 미션을 추가 도입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선다.

서포터즈에게는 카카오톡 독서팁, 이모티콘 플러스, 멜론·카카오페이지 이용권, 카카오T 포인트 등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 상품이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4대 금융, 올해 사상최대 실적 예고에도 주가는 지지부진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연간 예상 순익 6.6% ↑ 17.6조

기준금리 인하·NIM 축소 가능성
우리 제외 6개월 주가 두자릿수 하락

신한금융그룹

KB 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지만, 주가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복귀 우려, 밸류업 정책 동력 약화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금융주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예상 순이익은 총 17조6197억원으로, 전년(16조5268억원) 대비 6.6%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해 홍콩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예대금리차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형 금융지주의 주가는 최근 6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반년 전인 지난 10월 중순과 비교해 KB금융은 14.62%, 신한지주 16.73%, 하나금융지주는 12.18% 각각 하락했고, 우리금융만 0.43% 상승했지만 주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부분의 금융지주 주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주는 금리와 대출 수요, 기업 활동, 내수 소비 등 경제 전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은행의 수익 원천인 순이자마진(NIM) 축소가 우려되고, 미·중 관세전쟁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 대출 부실화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잠재 부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종·차주별 대출을 고위험·중

위험·저위험으로 나눠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 7일, 수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3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지만, 이는 자산건전성 관리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 역시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CET1 비율은 KB금융 13.51%, 신한금융 13.03%, 하나금융 13.13%, 우리금융 12.13%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위험가중자산(RWA) 확대로 CET1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은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밸류업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주는

애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인해 정부의 밸류업 대상군으로 주목받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대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증권가도 단기 주가반등에는 회의적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경기 악화에 따라 대손비용 증가와 위험가중자산 확대가 CET1 비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4대 금융지주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2025년까지 금융주는 뚜렷한 모멘텀 없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

“신고서 형식 미비, 중요사항 누락”
3개월 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정정 요구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출된 정정 신고서에 대해서도 기재 미비와 불명확한 내용 등을 이유로 17일 2차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고서 형식 미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또는 불분명한 기술로 인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됐다”며 정정 신고서 재제출을 통보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향후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7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 급락과 주주 반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일부 자금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부담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이 변경된 배경, 이사회 내 의사결정

과정, 자금 사용 계획,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인수한 직후 발표돼,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오너일가 지원→일반 주주 부담’ 구도로 비판받아 왔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회수에 구애 없이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도 불필요한 지장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허정윤 기자



(왼쪽부터)우길수 아톤 대표이사와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 전무가 지난 16일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아톤, PQC시스템 도입 맞손

금융권 보안강화 등 시너지 기대

메리츠증권은 보안·인증 솔루션기업 아톤과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전자서명 및 인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과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메리츠증권과 아톤은 양자내성암호 화알고리즘 기반의 전자서명 솔루션 적용 검토, 금융권 보안 강화 및 양자컴퓨팅 위협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수립 등 여러 부문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의 리테일 사업기반

경쟁력과 금융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아톤의금융권 PQC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한다.

메리츠증권은 기존 보안인증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양자내성암호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장은 “새로운 리테일 서비스에 최신기술을 적용해 진정성 있는 고객보호 방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자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금융보안 선도 증권사로서 고객 데이터보안 및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개미, 인버스 ETF 매입 ‘증시하락’ 베팅

‘선물인버스2X’ 857억 사들였지만
증시 제한적 조정 흐름에 12%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등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하락할 경우 2배의 수익을 추구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85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닥150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도 159억원어치 사들였고, 코스피200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인버스’ 역시 83억원어치 매입했다.

반면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는 대거 팔아치웠다. 개인들은 ‘KODEX 레버리지’ 2504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2058억원, ‘TIGER 코스닥150레버리지’ 54억원어치 등을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들의 이같은 ‘하락장 베팅’은 아직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약 12% 하락했으며,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와 ‘KODEX 인버스’는 각각 8%, 6%가량 내렸다. 이는 증시가 급락보다는 제한적인 조정 흐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피200지수는 최근 일주일간 32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코스닥150지수도 1140~1170선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시장 일각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과도

하게 단기 이벤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버스 ETF는 구조상 복리 효과와 일간 수익률 추종 방식 탓에 장기 보유 시 수익률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르거나 반등 흐름을 보일 경우, 기대한 수익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버스 ETF는 단기 하락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도구지만, 정치적 이벤트나 감정적 판단에 의존한 투자 전략은 위험하다”며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반등하거나 횡보세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정책이 여전히 증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거래대금 1위

한국투자신탁, 국내 채권형 ETF 부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가 최근 1년간 국내 채권형 ETF 중 평균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해당 ETF의 최근 1년 평균 거래대금은 약 192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채권형 ETF 153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채권형 ETF 평균 거래대금(14억원)의 약 13배 규모다.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년 만기 국채 중 잔존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추종하는 ‘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otal Return Index’를 기준으로 한다. 전일 기준 순자산은 약 2조79억원이며, 최근 1년 새 순자산이 약 9500억원 증가했다.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은 541억원, 최근 1년 기준으로는 2859억원에 이른다. 운용사 측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하도급법 우회’ 꼼수에 제동 건다 해외법인 거래도 실질따져 규제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기본계약·관리감독 여부 종합 판단
국내 하도급 유사 시 법 적용 가능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수력원자력

제네바 국제발명전 9관왕
VR·저장모듈, 기술력 입증
은상·동상·특별상 등 다관왕 차지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9일~13일까지(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5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참여, 은상, 동상, 특별상 등 총 9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42개 나라에서 1050여 점의 우수 발명품이 선보였으며, 각국 심사위원들이 발명품의 혁신성, 시장성, 기능 및 실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은상을 수상한 ‘SSNC(i-SMR Smart Net-zero City)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은 도시 전력의 수요-공급을 실시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현 기술을 선보여 국제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친환경·경제적 에너지원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동상을 수상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모듈’과 ‘다중 참여형 APR1400 가상현실(VR) 구현 장치’는 각각 경제성 및 혁신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우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술사업화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봄배추 등 수급안정 총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무 등 채소류 최대 40% 할인 지원

정부가 배추·무 등 가격이 예년에 비해 많이 오른 채소류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판매를 지원한다. 할인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노지 봄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비축·민간저장 물량 시장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잦은 이상기상과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봄배추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봄 배추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생육관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겨울배추는 작

년 가을 고온과 올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4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배추의 공급 확대를 위해 봄 작형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봄배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대비 약 50%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계약농가가 안심하고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확대 물량에 대해 전량 정부가 수매·비축한다. 여름철 수급불안 시 도매시장·김치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육부진에 대비하여 예비묘·약재 등 농자재 공급 및 생육관리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평년대비 10% 이상 증가해 봄철 배추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남부발전, 함안군 전력 66% 책임진다

함안 사내산단에 연료전지 준공
19.8MW 규모, 163GWh 전력 생산

한국남부발전이 함안군 사내산단에 고체산화물 방식(SOFC) 연료전지 19.8MW(메가와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본격 운전에 돌입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6일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발전소 현장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등 함안군 주요내빈과 주주사인 센트럴이엔지 CEO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안 사내산단 연료전지는 천년 아라가야의 숨결을 간직한 함안에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함께한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해 8월 주기기 설치, 12월 시운전을 거쳐 올해 2월 21일 전체 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완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매우 적은 신에너지원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소 대비 41% 수준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준공되기 전 브릿지 역할로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발전원으로 꼽힌다.

또 연간 163GWh(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해 함안군 전체 산업용전력소비량의 66%를 생산해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남부발전의 축적된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살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라는 함안군 슬로건처럼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70세 이상 농촌 경영주 ‘절반 넘어’

통계청, 고령화 여파 1년새 3%p↑

농촌 인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5%에 달했다. 또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4.1%(8만 5000명) 감소했다.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8%로 전년대비 3.2%포인트(p)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52.6%)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39.2%

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30.5%)와 50대(14.0%)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에 비해 70세 이상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에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50.8%로 가장 많았다. 비중이 1년 전(47.8%)과 비교해 3.0%p 늘어났다.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농림어가의 주요 가구유형은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8%로 가장 많았다. 전체 농가의 55.7%는 전업농가로 전년대비 0.7%p 감소했고 44.3%는 겸업농가로 전년대비 동일했다. 경지규모를 보면 1.0헥타르(ha) 미만인 농가가 72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대다수(74.0%)를 차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농업 키운다… 기후 대응도 강화”

서효원 농진청 차장
“현장 맞춤 기술로 농가 지원”

농촌진흥청이 농촌지역 스마트팜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고, 시설채소의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에 한창이다.

17일 농진청에 따르면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이날 강원 양양·강릉을 방문해 이 같은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서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높은 청년 및 예비농업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재배 기술 개발·보급, 첨단온실 에너지절감 신기술 연구 등에 더욱 속도를 높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서 차장은 이날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에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내년 의대 증원 없다… 이주호 장관 “교육 정상화 총력”

교육부,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증원 논의 이전 2024학년도 수준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 없을 것”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동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의대생 수업 복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년 연속 정부가 의료계 투쟁에 굴복해 ‘2000명 증원’ 뜻을 굽히면서, 내년 다시 논의해야 하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주호 장관 “의대교육 어려움 타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 교육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와 관련,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올해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의대 증원 논의 ‘안갯속’

정부가 결국 내년 의대 증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정부가 조정한 사항은 내년에 한해 적용되는 모집 인원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추계해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의대협회와 의총협 건의를 바탕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투쟁에 굴복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기준은 학생들의 수업 등록이 아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인정한다고 전제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미진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지난달 31일 집계 기준 99.4%가 등록을 마

쳤지만, 이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전국 40개 대학 7개 학년 평균 16일 기준 수업 참석율은 25.9%에 그쳤다.

내년 정원이 동결되면서 2027학년도 모집 인원 증원에도 힘이 실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3058명 이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치”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추계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따라 인프라 확장에 투자해 온 대학은 2027학년도 증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아대 의학교육 정상화 전담팀(TF) 팀장을 직접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추계위에 결정이 되면 3058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대로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7685억 투입”

전년대비 8.1% ↑… 큰 폭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979억 편성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7685억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 (1321억원) 늘었다. 서울시 총예산 (48조1145억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했다.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커졌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지난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15만 5000명 (40%), 청각장애인 6만 6000명 (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 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000명(9%) 순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총 697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 6150원에서 1만 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다.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한다.

시는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 120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버스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한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다.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 환경 개선에도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취약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안전·행정서비스 등 AI 기술 고도화

‘상황분석 어시스턴트’ 등 3건 적용

경기도가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과제로 선정한 3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복지·행정서비스 분야에 적용한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사업이다. 공공분야에서 효과성을 따는 AI 기술 보유기업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매칭해 AI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과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I 기반 119 신고접수 및 상황분석 어시스턴트 개발’ ▲부천시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을 AI복지콜’ ▲광주시 ‘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개발’ 등 3건이다.

안전 분야 과제인 ‘AI 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신고 내용을 즉각 문자로 변환하고 핵심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다. 음성인식 기반의 119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

복적인 질문 없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난 신고부터 출동 지령까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천시가 ‘온마을 AI복지콜’을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AI 음성 분석으로 통화 중 노령층의 경도인지장애 여부를 선별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AI 콜 시스템을 활용해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을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사회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행정서비스 과제 ‘GeniusGov(지능형 행정 어시스턴트)’는 LLM(AI 기반 거대언어모델)과 RAG(검색증강생성)를 적용한 통합 챗봇 시스템이다. 음성 인터페이스를 도입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24시간 민원상담, 생활정보 안내, 재난 정보 제공 등 최신 행정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생성형 AI, LLM, RAG, 양방향 AI 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선정 과제는 11월까지 실증을 마칠 계획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이오시스템, 방산기술 개발 맞손

인하대학교는 최근 ㈜이오시스템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하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는 국방 분야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방산용 전자광학·영상처리 장비 분야의 선도기업인 이오시스템과 손을 잡았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박인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장과 한정규 이오시스템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방산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개발·실시간 영상처리 방법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기술 자문 ▲제작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집중 교육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을 위한 연구시설·실습 기자재 공동 활용 ▲기업 인턴십·현장학습 통한 학생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학교와 이오시스템이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인규 인하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장과 한정규 (주)이오시스템 대표이사가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용인시,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우수도시 선정

기후위기 대응 노력·성과 인정받아

용인특례시가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은 140여 개국 1만 35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적 행동협약체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대응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적 인증 배지를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는 만큼 용인특례시가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적 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제 기자 yujin@

성장 멈춘 편의점… 해외진출·특화매장으로 ‘퀀텀점프’

CU 몽골에 460개 점포 개점
연내 500호점, 현지 점유율 70%
‘와인25플러스’ 큐레이션 매장 확대

GS25 베트남에 점포 355개 오픈
올해 500개, 2027년 700개 목표
무신사·한화이글스와 협업 진행

수년간 ‘불황 속 성장’의 대표주자로 꼽혔던 국내 편의점 산업이 최근 들어 역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과도한 시장 경쟁,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탓에 꾸준히 증가하던 매출과 점포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주요 브랜드들은 해외 시장 진출과 특화 매장을 중심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줄며 2020년 이후 약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식품(-5.4%)과 비식품(-3.6%) 모두 매출이 줄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기록해왔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뒤바뀌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베트남 현지 고객들이 하노이에 오픈한 GS25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은 연간 영업이익이 0.6% 감소한 2516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6.2% 증가한 8조6988억원이었다. GS리테일의 편의점 사업부문인 GS25도 영업이익이 1946억원으로, 전년(2183억원)보다 10%나 줄었다. 연간 기준 매출액은 8조6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양사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이 뒷걸음친 셈이다.

지난해 신규출점을 살펴보면, GS25는 지난해 총 722개의 점포를 새로 출점하며 1만8112개로 점포를 늘렸다. CU는 총 점포 수 1만8458개로 696개를 출

점하는 데 그쳤다. 두 업체 모두 2022년과 2023년 900개 안팎의 신규 점포를 연 것과 비교하면 출점 규모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동력으로 여겨졌던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되고, 고정비 부담은 높아지면서 ‘더 이상 확장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CU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에는 460점에 달하는 점포를 개점했으며, 올해 안에 500호점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CU는 몽골 편의점 업계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점유율로 1위에 올라와 있다.

GS25는 베트남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 1월 호찌민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 점포 수가 355점까지 늘었다. 올해 500개, 2027년 700개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깃발을 꽂은 이마트24는 현재 87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국내에 남은 전략으로는 ‘프리미엄화’와 ‘특화 매장’이 있다. 단순히 음료나 라면을 파는 공간에서 벗어나 와인 전문점이나 도시형 푸드숍 같은 특화 매장을 열고 있다. 예컨대 CU는 ‘와인25플러스’를 통해 와인 큐레이션 매장을 확대 중이며 GS25는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와 협업해 전국 3000여개 매장에서 윈드브레이커 재킷, 반소매 티셔츠, 라운지 스웨트 팬츠, 양말 등 총 12종의 ‘무신사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상품을 판매 중이다. 최근에는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와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차세대 가맹 운영 모델 ‘뉴웨이브’ 점포를 중심으로 차별화를 선보이고 있다. 푸드부터 패션&뷰티에 이르기까지 고객 맞춤형 상품이 구성돼 있다. 특히 식품 카테고리 강화를 위해서 좁은 공간에 들어섰던 즉석식품을 한곳에 모아 ‘푸드 스테이션’ 존도 새롭게 만들었다.

기존 고객의 객단가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모든 점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특화 매장은 대도시권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편의점 모델이 중심이다. 해외 시장 역시 진입 장벽이 낮지 않다. 물류 인프라, 현지 법규, 소비자 문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수익화까지는 긴 호흡이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더 이상 ‘무조건 많이 열면 된다’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각 브랜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지금의 정체는 더 깊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라셀라 ‘스텔라 디 캄팔토’ 와인 2종 국내 단독출시

이탈리아 토스카나 부띠끄 와이너리
유기농·바이오다이나믹 농법 적용
몬탈치노 최초 바이오다이나믹 인증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부띠끄 와이너리 ‘스텔라 디 캄팔토(Stella di Campalto)’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종을 국내에 단독으로 수입·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텔라 디 캄팔토’는 토스카나 몬탈치노 남쪽에 위치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스텔라 비올라 디 캄팔토(Stella Viola di Campalto)가 양조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 이 와이너리는 마스터 오브 와인(MW) 팀 앳킨(Tim Atkin)이 선정한 1등급 몬탈치노 와이너리 중 하나로, 솔데라, 포지오 디 소토와 함께 최고의 와이너리로 손꼽힌다.



스텔라 디 캄팔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종.
/나라셀라

유기농·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을 적용해 2005년 몬탈치노 지역 최초로 바이오다이나믹 인증을 획득했고, 최상급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만 생산한다. 연간 생산량이 2만 병 이하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띠끄 와이너리로, 매 빈티지

마다 전 세계 옐로케이션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자랑한다.

이번에 나라셀라가 국내에 선보이는 와인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아리아(Aria)’ 2018과 ▲‘바치아(Bacia)’ 2019, 총 2종이다. 두 와인 모두 포도밭 내 자생하는 토착 효모를 활용해 발효되며, 오크 배럴에서 34개월간 숙성된다. 이후 ‘아리아’는 42개월, ‘바치아’는 29개월간 병 숙성을 거쳐 출시된다.

이탈리아어로 ‘공기(Air)’를 뜻하는 ‘아리아(Aria)’ 2018은 해당 포도밭의 독특한 공기 흐름이 포도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쳐 탄생한 와인이다. 단 4287병만 한정 생산된 이 희소한 빈티지는 레드커런트의 신선하고 산뜻한 아로마와 붓꽃의 진한 향이 특징이며, 검붉은 과실과 향신료, 부싯돌 향의 여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탄닌

과 미네랄리티의 균형이 돋보이며, 숙성된 페코리노·파마산 치즈, 크림리한 리조토, 붉은 육류 요리 등과 잘 어울린다.

‘바치아(Bacia)’ 2019는 이탈리아어로 ‘입맞춤’을 뜻하는 이름에서 유래하며,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과 산딸기 아로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총 8537병 생산된 이 와인은 예술가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듯 생동감과 강건함을 동시에 지닌 와인으로 부드러운 탄닌이 입 안을 가득 채우며 긴 여운을 남긴다. 토마토 베이스 미트 파스타, 스테이크, 진한 풍미의 스투 등과 함께 즐기길 좋다.

이번 출시된 와인 2종은 전국 주요 특급 호텔 및 ▲빠넬로(서울 마포구 서교동), ▲비스트로 퍼블릭(대전 유성구 어은동) 등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서 고객들이 치즈 플리즈 존을 구경하고 있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오픈

이마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을 개점하며 한층 진화한 미래형 리테일 매장을 17일 선보였다.

‘푸드마켓’은 이마트가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점에서 처음 도입한 ‘식료품 특화 매장’으로, 약 5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5년 만에 서울에서 선보이는 이마트 신규 점포인 고덕점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은 급변하는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 이마트의 본업 경쟁력인 ‘그로서리 상품 개발 및 기획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넥스트 이마트’ 모델이다.

이를 위해 필수 장보기 상품은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해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건강·이색·프리미엄 식재료를 강화해 미식의 깊이를 더했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유통 트렌드를 면밀히 연구하고 신규 점포의 상권과 입지를 분석해 수성점의 ‘푸드마켓’ 모델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저숙노화와 웰니스에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수입 과일과 유러피안 채소를 모은 ‘글로벌 가든’과 웰빙 간식용 겹과일과 스틱채소를 신규 개발해 ‘프레쉬스낵’ 존을 선보인다.

/이세경 기자

CJ온스타일, 가정의달 맞아 ‘선물페스타’ 우리동네GS ‘사전예약’ 매출 173% 급증

‘선물’ 키워드 30일까지 행사

CJ온스타일이 5월 가정의달을 맞아 17일~30일 선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이 ‘선물’을 키워드로 모바일과 TV 전 채널을 통합해 진행하는 행사는 처음이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6일 대채공휴일까지 긴 황금연휴에 비하면 모바일 선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선물페스타를 특별히 기획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앱 내 ‘선물하기’ 전문관을 상품 포트폴리오와 맞춤형 큐레이션을 고도화해 새단장한 바 있다. 새단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네 달간 선물하기 이용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CJ온스타일 선물하기관의 강점은 큐레이션이다. 웰니스, 스포클서리, 미식, 힐링뷰티 등 테마별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센스있는 선물을 추천해준다.

/이세경 기자

GS25, 1분기 큰 폭 성장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GS’에서 제공하는 ‘사전예약’ 서비스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GS리테일은 17일 우리동네GS ‘사전예약’ 서비스 매출이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앱에서 미리 주문 및 결제하고, 편

리한 시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신상품 및 IP(지적재산권) 제휴 상품, 화제성 높은 이슈 상품 등을 선보이는 ‘기획전’과 ▲도시락, 김밥 등 간편식을 상시로 예약해 수령할 수 있는 ‘예약주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브라운관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한 기획전 상품이 높은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모남희 ▲두바이초콜릿 ▲경탁주 ▲헬리독스 ▲엔하이픈·르세라핌 앨범 등이 흥행을 이끌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법인 세우고, 공장 건립… K뷰티, 美 맞춤형 전략으로 수익 상승

한국콜마 이달 미국 2공장 완공
북미 넘어 중남미 영업망 확대
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
美 사무소 열고, 자회사 경영권 강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설화수’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입점
에이피알 로스앤젤레스 팝업 진행



한국콜마 USA의 미 펜실베이니아 제2공장. /한국콜마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뉴욕 플라싱점에 입점한 설화수 매장. /아모레퍼시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메디큐브 팝업 행사 전경. /에이피알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화를 공략하기 위한 ‘K뷰티’의 맞춤형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1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들은 일찍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마련해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다.

한국콜마는 이달 미국 펜실베이니아 제2공장을 완공하고 본격 가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2023년 1월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한국콜마는 같은 해 미국 뉴저지에는 ‘북미기술영업센터’를 개관하며 영업망도 구축했다.

이번 제2공장은 국내 뷰티 브랜드를 비롯해 글로벌 브랜드까지 정조준하는 해외 거점지가 될 전망이다. 한국콜마 미국법인인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글로벌 고객사가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미국으로 생산지를 이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북미 소재의 파트너사들로 향후에는 중남미 시장까지 영업망을 넓힐 계획이다.

코스맥스도 미국법인으로 코스맥스 웨스트를 운영해 왔다. 코스맥스 웨스트 자회사인 코스맥스 유에스에이, 코스맥스 캘리포니아 등을 통해 각각 화장품 제조, 유통 등을 전개하는 투 트랙을 갖췄다.

코스맥스 미국법인은 지난해 연간 매출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1371억원을, 영업손실은 32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코스맥스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영업 사무소를 통해 신규 고객사가 유입되고 있어 올해부터 본격적

인 매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올해 들어 미국 자회사 잉글우드랩 경영권을 강화했다. 잉글우드랩은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되는 화장품 제조에 특화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자외선 차단제, 여드름용 제품 등 기능성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해외 고객사들과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K뷰티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브랜드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는 미국 최대의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에 입점해 K뷰티의 높

은 제품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설화수는 윤조 에센스, 자음생 크림, 진설 크림 등 브랜드 대표 제품을 선보인다.

앞서 올해 2월 메이시스 온라인 채널 메이시스닷컴을 시작으로 3월 미국 뉴욕의 플라싱점, 로스앤젤레스의 산타 애나타점과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점 등에 각각 입점을 완료했다. 이밖에 미국 전역에 분포한 420여 개에 달하는 메이시스 백화점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K뷰티 대표 인디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에서 MZ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 3월 19~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멜로즈 거리에서 메디큐브 팝업 행사를 열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일주일간 방문객은 총 약 5000명에 달했고, 새벽부터 긴 입장 대기 행렬

이 이어졌다.

미국 현지에서 K뷰티 간의 협력도 돋보인다.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는 K뷰티 브랜드 ‘하파크리스틴’ 플래그십 매장에서 브랜드를 알렸다. 하파크리스틴은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에 2개의 단독 매장 문을 열었고,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들을 소개하며 방문객을 모으고 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무역 환경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불안정성에도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라며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규모, 많은 인구, 다양한 인종 등 미래 성장성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중남미서 허쥬마 등 수주 낭보

브라질·코스타리카 ‘허쥬마’ 연장
과테말라서 ‘베그젤마’ 수주 성공

셀트리온이 글로벌 주요 파머징 시장인 중남미 지역에서 입찰 성과를 이어가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우선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에서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의 공급 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허쥬마 출시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트라스투주맙 연방정부 입찰에서 5년 연속 낙찰을 이어온 데 이어, 최근 다시 한번 공급 기간 연장에 성공해 2026년 3월까지 허쥬마를 공급하게 됐다.

해당 입찰은 브라질 트라스투주맙 시장에서 97%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도 해당 시장에서 안정적 매출 확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중앙정



셀트리온의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

부 산하 사회보장청(IGSS)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입찰 만료 시 신규 입찰 대신 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성과가 중요한데, 베그젤마는 출시 전부터 시장 선점에 성공해 지속적인 공급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가 과테말라에서 70%의 점유율로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셀트리온은 더욱 강력해진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코스타리카에서도 허쥬마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청(CCSS) 입찰에서 추가 공급을 확정하며 올 상반기까지 연장 공급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트룩시마와 허쥬마가 각 제품이 출시된 2019년, 2021년부터 매년 입찰 수주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중남미 각국의 의약품 시장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제품 경쟁력, 공급 안정성 등 회사의 강점을 입찰 시장 선점에 적극 활용해 왔다. 특히 국가별 입찰 기관 및 의료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여기에 다년간 셀트리온 제품을 사용한 현지 의료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Top-pick) 치료제로 자리매김한 점도 입찰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파리바게뜨 “손흥민 포토 스티커 모아요”

토티엄 빵·케이크 라인업 선보

파리바게뜨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토티엄 핫스퍼(Tottenham Hotspur)와 팀 선수들을 모티브로 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이번 제품 출시는 파리바게뜨가 글로

벌 스포츠 마케팅으로 토티엄 핫스퍼와 체결한 공식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먼저 토티엄 핫스퍼의 팀 주장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제임스 매디슨(James Maddison), 루카스 베리발(Lucas Bergvall), 아치 그레이(Archie Gray) 등 토티엄 인기 선수

들의 포토 스티커 20종을 랜덤으로 만날 수 있는 토티엄 빵을 출시한다. 달콤한 꿀필링과 고소한 해바라기씨, 호박씨가 들어간 허니볼 5개로 구성된 ‘토티엄 허니볼’ 호두, 크림치즈, 파마산 치즈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토티엄 크림치즈빵’이다. 축구 경기장을 표현한 ‘토티엄 숏-골인 케이크’도 선보인다. 아몬드 크림과 초코 크림을 넣어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제약, 구중청량제·치약제 GMP 인증

액제류 제조업체 국내 첫 인증 사례

동아제약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동아제약 이천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구중청량제와 치약제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구중청량제와 치약제는 액제 제품군으로, 액제류 제조업체가 GMP 인증을 받은 사례는 동아제약 이천공장이 처음이다.

동아제약 이천공장은 가그린 오리지널, 가그린 제로, 가그린 스트롱, 가그린 어린이용, 검가드 오리지널 등 의외외품까지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생산한다.

동아제약은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

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최고의 품질, 안전성, 효능 확보를 제조 및 공급, 유통 전체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수립해 왔다. 앞서 지난 2019년 의약품 연고제의 GMP 인증을 시작으로 내용액제, 치과처치용 재료 의료기기, 의료처리용 기계기구 의료기기의 GMP 인증을 획득했다. 2022년에는 환경 및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인 ISO 14001, 45001 등을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했다.

강보성 동아제약 생산본부장은 “앞으로도 ‘품질’ 최우선 경영 원칙을 지속 실천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혈우인의 날 ‘브라보 캠페인’

여성 혈우병 설명 영상콘텐츠 공유

JW중외제약은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아 혈우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브라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혈우인의 날은 4월 17일로, 세계혈우연맹(WFH)이 혈우병과 기타 출혈성 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89년 제정했다. 올해는 ‘모두에게 열린 치료: 여성과 소녀들도 출혈장애를 겪습니다’라는 주제와 함께 여성 출혈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혈우병의 원인, 증상, 진단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혈우병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주로 남성에서 발병하지만, 여성도 혈우병 유전자를 보유한 ‘혈우병 보인자’인 경우 출혈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보인자는 월경과다, 출산 후 출혈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감자연구소 못난이 치즈감자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로 재탄생한
대만 야시장 스타일 감자 디저트



진하고 고소한 체다크림치즈소스!



* 상기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www.dseshop.co.kr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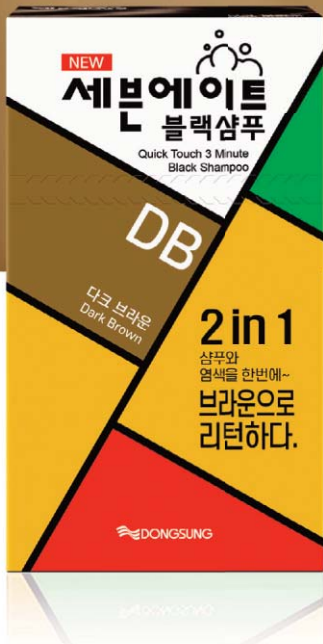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
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W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 | 구입 문의 **080-854-0082**

폭삭 속는 세상



박 승 덕 의
냉정과 열정사이

올 봄 ‘폭삭 속았수다’(매우 수고하셨습니다)란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다. 억척스러운 어머니 아래서 아무지도 뽕뽕하게 자라난 오애순과 무쇠처럼 성실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양관식의 인생 이야기다. 봄에 만난 사람마다 빠지지 않는 화두였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콧끝이 찡했던 이유는 불우했던 어린시절과 삶을 희생했던 부모님이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어릴적 어른들이 말하곤 했다. 살 만 하다 했더니 세상을 등진다고. 폭삭 속았수다의 관식 처럼.

며칠 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벼꽃이 핀 봄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린 날도 여러차례다. 겨울 같은 봄이다. 어떤 사람은 요즘의 이상기후를 ‘트럼프 날씨’라고 했다.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트럼프를 빗댄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

(對)미 무역 흑자가 많은 주요 무역국에는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일본 24% ▲베트남 46% ▲유럽연합(EU) 20% ▲대만 32% ▲인도 26% ▲인도네시아 32% 등이다. 중국에는 기존 20% 관세에 새롭게 부과되는 34%포인트(p)를 더해 54%의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이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90일간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다. 물론 중국(총 145%)은 예외였다.

트럼프가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의 집권 속제는 무역적자 해소와 부채 축소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 넘는 관세 전쟁 이후 미 국제 금리가 4.5%까지 치솟았다. 누군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을 대거 팔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이렇게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부채를 줄이기는 커녕 늘어나는 구조다. 국제 금리에 연동되는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른다.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미 국민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관세 전쟁이 트럼프에겐 부메랑이 된 셈이다. 무역이 줄어 들면 경기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결정에 대해 시장에선 “트럼프

가 채권 시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최근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재테크포럼에서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 자산가들의 탈(脫)미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자산가들이 로마,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자산(주식·채권 등)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많은 남편들은 폭삭 속았수다의 양관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씨’로 불리는 부상길이 70%라고 한다. 실제와 다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셈이다. 정치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파면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감능력이 부족한 ‘유체이탈’이다. 국민 모두를 생각하기 보다 자기 편만 생각한다. 반성도 사과도 없다. 백성들은 그냥 폭삭 속았다. 검사출신이어서 똑똑하고, 정치 신인이어서 순수할 줄 알았다. 실제로는 폭삭 속았을 뿐이다. 어쩌면 미국 국민들도 폭삭 속을 수도 있겠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며 트럼프를 선택했지만 그의 집권 초반 그림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미래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기지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가 내려졌다. 계엄선포에 가장 놀란 국민은 1960~1970년 계엄령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은 창문을 열어 상황을 파악했고,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은 인터넷으로 계엄을 찾았다.

모든 것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움직인다. 계엄을 겪었던 이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계엄 이후 자라난 세대는 국회의 사당을 찾았다. 계엄을 겪었던 이들은 시대가 변화했지만 변화한 세대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고, 계엄 이후 자라난 세대는 그 세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세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한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46년생인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에는 30~40%가량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저임금에 확대한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가 경험한 그 세대만의 성장전략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이제는 이 분야가 한 국가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라가 성장했다면 그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로 성장을 꾀하는 것이 맞다. 기존에는

공장을 설립해 조립 등을 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제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해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이 성장의 끝에서 퇴보하는 시간, 우리나라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제조업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높고, 세계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에 비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다음 세대의 눈으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미국이 정책을 내밀어도 꾀쩍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다. /yul115@

오늘의 운세4월 18일 (음 3월 21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약속 시각에 늦을 수 있으니 시계 잘 보도록. 48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지인을 잃는다. 60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을 들어라. 72년생 누군가를 재미로 흥보지 않도록. 84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니 일이 잠시 지체됨.

 소

37년생 음악회에 초대받으니 기쁜 하루. 49년생 거짓 눈물에 속지 않도록 하자. 61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지만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듯. 73년생 공짜에 맛 들이지 않도록. 85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

 호랑이

38년생 우러나는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50년생 돈하고 아둔한 나를 찾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62년생 앞날을 위해서 지금 실비보험을 들도록. 74년생 망신살의 부정적 신살 주의. 86년생 아무도 능력이라 했다.

 토끼

39년생 돌아가 실 집이 없다. 51년생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63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서 도로 아미타불. 75년생 베풀지 않으면 덕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87년생 인맥이 도움이 되어 난국을 타게.

 양

40년생 힘겨움에 시달리는 건 결국 내 책임. 5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신중. 64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으니 게으름을 떠나라. 76년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끽하자. 88년생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뱀

41년생 기대가 크나 시간이 많이 지나쳐서 이득은 적다. 53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일과이다. 65년생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마음에 있다. 77년생 이별 통보도 결국 각자의 인연 법. 89년생 바람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용서함.

 말

42년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보라. 54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66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지 않다. 78년생 남의 허물을 말하려거나 드러내지 말자. 90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져 나간다.

 고양이

43년생 금할수록 돌아가야 실수가 없다. 55년생 마음만 잘 다스려도 재물이 찾아온다. 67년생 지각하지 않도록. 79년생 삼재이니 귀신과 액을 쫓기 위해 팔죽을 쑤어 먹어 보자. 91년생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원숭이

44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56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68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80년생 신앙이 있다면 기도로 힘을 찾아보도록. 92년생 저녁에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

 닭

45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 57년생 위장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69년생 의외의 복병을 조심해야. 81년생 사건이 많다 보니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이해. 93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돼지

46년생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 58년생 예단 준비로 의견충돌 예상. 70년생 오후음주는 삼가. 82년생 과학은 미래예측이 미리 예방되니 사전 준비할 수가 있다. 94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인 것.

 돼지

47년생 나중에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고부간이 나의 일이 될 수. 59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움츠려라. 71년생 그림을 취미로 해볼 것. 83년생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는 현상. 95년생 헤어지기도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사 인연.

김상회의四季

삶의 지혜, 절기



정월 보름도 지나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농본사회였던 만큼 선조들은 절기를 따져 농사 준비를 시작하곤 했다. 때맞춰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시절적인 기준을 알려주는 데는 절기가 딱 맞았다. 물론 절기의 개념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선조들은 절기가 곧 생활양식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조상 대대로 민속적인 행사를 포함한 세시풍속은 모두 절기가 계절을 알리는 시계 역할을 한 것이다.

필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주명리학 역시 생년월일을 뽑고 대운을 살필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은 절기로 파진 생월(生月)이 운명과 운기를 추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음력 1월 1일이 생일이라 해도 절기상으로 입춘 전이라면 이 사람의 생월은 1월이 아니라 전달, 즉 전해의 음력 12월을 생월로 보기에 띠도 새해가 아닌 직전 해의 띠로 본다. 이는 생일에도 적용이 되니 음력 2월 1일이나 2일이라 하더라도 경칩일 이전이라면 2월생이 아닌 음력 1월생으로 월주와 일주를 따지게 되니 운명 추론에는 음력 생일보다 태양에 의한 절기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태양의 황경(黃經)에 따라 24등분 하여 계절을 자세히 나눈 것인 절후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에 의해 계절과 날씨가 정해지는 만큼 실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절기가 지닌 계절적 특징이 거의 한 치도 틀림이 없기에 농사가 주된 산업동력인 나라들에 있어 절기야말로 정확한 계절 시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면 그다음은 경칩이다.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난다는 데서 유래한 절기의 이름인 경칩은 반드시 개구리들만이 반기는 날은 아닐 것이다. 개나리며 진달래가 동산을 물들이니 드디어 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4	3	8				1
8					1			
2	5				6			
		2		9				
9								6
				1		9		
			9				6	4
			1					5
3				6	5	2		9

3		1	2					6	4
5									
				3					9
				8		3			2
		6					8		
1			7		6				
9				8					
									8
8	1				9	4			7

6	1	2	9	9	2	8	7	8
9	8	8	2	7	1	9	6	2
7	9	2	1	8	8	9	2	1
2	2	6	7	1	9	8	8	9
9	9	7	8	2	8	2	1	6
8	8	1	2	6	9	2	9	7
2	6	8	9	2	7	1	9	2
2	7	9	1	9	2	6	8	8
1	2	9	6	8	8	7	2	9

2	8	7	6	9	9	2	1	8
8	9	6	2	7	1	8	9	2
9	2	1	2	8	8	9	7	6
1	7	8	9	2	2	6	8	1
1	2	8	9	6	7	9	8	2
2	6	9	8	1	8	2	9	7
6	8	2	1	8	9	7	2	9
8	1	2	7	9	6	8	2	9
7	9	9	8	2	2	1	6	8

‘탭-샵-바’ 유기적 결합… “새 목표는 와인 이커머스 플랫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80

나기정 탭샵바 대표 인터뷰

평일 오후 6시 탭샵바 청계점. 익숙한 듯 들어서서 와인을 고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주썬주썬 두리번 거리는 손님도 있다. 한두 번이 아닌 것 처럼 혼자 와서 와인 한 잔을 두고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이도 있다. 다양하지만 공통점이라면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와인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서 와인 MBA 등 전문 역량 갖춰
한식 접목한 ‘와인주막차차’ 첫 작품
탭샵바, 올해 연매출 150억 전망

5호인 서울 합정점까지 그간 다년간 이틀만 6만명이 넘는다. 2022년 12월에 1호 동대문점이 문을 열었으니 3년도 채 되지 않아서다. 재방문율은 50%가 넘는다. 이 정도면 나기정 탭샵바 대표가 20년 전 꿈꾸던 와인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 아닐까.

새로운 꿈은 전 세계 주요 메가시티로의 진출이다. 첫 타자는 미국 뉴욕이다. 빠르면 연내다. 한국의 와인바가 뉴욕 진출이라니. 괜찮다. 한국은 몰라도 와인은 알테니 말이다. 그게 나 대표를 와인에 빠져들게 한 힘이기도 하니까.

나 대표를 만난 곳은 3호점인 도산점이 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와인을 마실까부터 시작해 이제 세계 주요 도시에 탭샵바 거점을 두고 앱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 와인주막차차에서 탭샵바까지

나 대표의 와인 외길 인생이 시작된 것은 2005년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와인 자체가 낯설었을 뿐 아니



나기정 탭샵바 대표.

라 와인,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술인 것을 공부까지 하겠다는 별종이었다.

와인 MBA로 이론을, 귀국 후 와인 수입사에서 실무를 익히고는 바로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다. 당시 한식과 와인을 접목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와인주막차차’가 그의 첫 작품이다. 주막이란 네이밍은 고심의 결과물이다. 해외의 비스트로나 펍 등을 떠올리자니 식당이자 선술집이었고, 카페, 호텔 역할까지 했던 주막이 딱이었다.

나 대표는 “스시라면 일본을 떠올리는 것처럼 음식은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된다”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우리가 매일 먹는 한식에서 와인과의 접점을 만들어야 시장이 커지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차육쌈’과 ‘차돌라면’은 의외로 와인과의 어울렸고, 난제였던 와인 고르기는 학위 논문에서 제안했던 ‘와인사다리’를 활용해 쉽게 접근토록 했다.

한식과 신선하고 좋은 재료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 탭샵바에선 매일 통영 양

식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굴을 맛볼 수 있고, 순대튀김은 안 시키면 서운한 메뉴다.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코로나19로 와인주막차차가 문을 닫게 됐는데 나 대표의 눈에 와인 소매 시장이 급성장하는게 보였다. 와인샵 ‘와인도깨비’를 열었더니 월 매출이 1억원을 웃돌 정도로 잘됐다. 팬데믹으로 와인 수요가 급증하자 대형 와인샵에서 러브콜이 왔다. 와인샵 옆에 여러 종류의 와인을 잔으로 맛볼 수 있는 탭과 음식 공간을 운영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당시 고가 와인을 잔으로 맛볼 수 있다는 입소문에 탭 자체는 소위 대박이 났지만 돈은 되지 않았다. 테이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80~100종 이상 다양해야 하고, 또 싸야 한다. 마진은 적고, 디스펜서 기계는 비싸다. 빠르게 망하게 딱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좋았던 힘들었던 모든 여정이 탭샵바로 귀결됐다. 탭과 샵과 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보니 살 길이 알아서 찾아졌다. 탭 만으로, 샵 만으로,

바 만으로는 안되던 일이다 해결되더라 말이다.

나 대표는 “여러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를 총망라한 것이 탭샵바”라며 “와인바로 F&B의 기본을 갖추고, 샵으로 소비자 경험이 쌓였다. 탭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지만 사람을 불러들인다. 여기에 샵과 바를 붙여 일상에서 가볍고 싸게 매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 글로벌 메가시티 진출 모색

한국에서는 동대문을 시작으로 청계와 도산, 여의도, 합정 등 5개 매장을 열었다. 보통 매장 한 곳당 매출이 30억원 안팎으로 올해 연매출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는 서울에만 20개의 매장을 내는 것이지만 해외 진출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싱가포르, 대만 등 메가시티를 살펴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앱을 통해 와인을 주문하고 배달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거점 네트워크가 20개다.

나 대표는 뉴욕에 매장을 열기 위해 이번 주 초에도 뉴욕에 다녀왔다. 기관 투자자들과도 만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F&B가 전통 산업으로 취급되지만 미국에서는 샐러드계의 스타벅스라는 스위트그린처럼 앱과 편의성을 입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도시에 거점 마련 계획 기관 투자자 등 기업가치 인정받아 “와인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진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와인을 팔 수 있는 규제는 풀렸지만 아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류 배달은 막혀 있다”며 “일단 스타벅스와 같이 사이렌오더로 주문하고 개인화된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향후에는 B마트와 같은 와인 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smahn1@metroseoul.co.kr



탭샵바 도산점 매장 전경.



왼쪽으로는 와인샵, 오른쪽으로는 한 잔 씩 와인을 테이스팅할 수 있는 와인 탭이 자리해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허니문 끝났나… 미국인 52% “트럼프 국정 운영 지지 안 해”
/사진 뉴시스
▲ 트럼프, 하버드대 면세 자격 박탈하나… 국제 청에 요청

▲ 美 이란 석유 수출 관련 中 해운사·선박 제재… 트럼프 2기 6번째
▲ EU, 철강·섬유 등 환경규제 강화…한국 수출에도 영향

▲ 예멘 수도 사나에 또 미군 폭격.. 1명 죽고 여러 명 부상
▲ 日이시바 “다음 단계 이어지는 협의…적절한 시점 방미 고려”



성장 멈춘 편의점
해외진출 등
반등 노린다
L1



Life

K뷰티
미국 현지 공략
맞춤전략 구체화
L2



녹음과 분수 어우러진 청량한 쉼터... 봄 물든 ‘프라이빗 정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최고 30층 13개동 총 1500세대 규모
조경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

녹음 둘러싸인 안개분수, 휴게공간 등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서 일상 속 힐링

단지 곳곳에 미디어아트, 조각상 설치
조각상 ‘커넥티드’ 작품으로 공간 연결
테마놀이터로 동심 가득 놀이요소 연출



1 ‘커넥티드’ 조각상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든 ‘그랜드 플라자’. 2 자작나무 어우러진 휴게공간 ‘엔틱 가든’. 3 석가산 분수와 청단풍으로 둘러싸인 ‘미스티포레’. 4 단지 내 산책로. /전지원 기자

최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부평동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부평 2구역).

브랜드를 상징하는 오렌지 구름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해 12월 입주 시작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 3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단지가 보인다. 지하주차장과는 바로 연결돼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서는 드문 사례다.

단지 주변으로 인천부평남초, 인천동수중, 부원중, 부평여고 등이 위치해 있다. 모다백화점 부평점, 롯데마트 부평역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DL건설이 시공한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3개동, 총 1500세대 규모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39㎡ ▲49㎡ ▲59㎡ ▲74㎡ ▲84㎡로 중소형 평수 위주의 실속 단지로 구성됐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돼 매연이나 공해 걱정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3~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혁신 평면을 적용했으며 남향형 방배치를 통해 채광과 일조량, 맞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데드스페이스(사용되지 않는 공간)를 최소화해 실사용 면적을 크게 확보했다.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함께 제공돼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

단지에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넓게 뻗은 단지 내에 광장이 보인다. 정원과 조각상 등도 배치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로맨틱 가든’은 운동 시설과 휴게 공간이 어우러졌다. 파스한 봄 느낌의 정원을 조성했다. ‘엔틱 가든’은 스텝가든의 휴게공간과 자작나무를 식재해 이국적이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했다.

‘미스티포레’는 석가산의 은은한 안개분수와 청단풍의 녹음으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이다. 쾌적한 생태환경의 유지를 위해 연못 안으로의 출입은 금지돼 있다.

미스티포레 옆에는 김승훈 작가의 조각상 ‘라이트플로우’

가 설치돼 있다. 기하학적인 이미지들을 형상화한 도형들을 통해 시각화한 작품으로 몽환적인 이미지로 환기시키려는 창작물이다.

단면에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추상적인 순간들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했다. 낮에는 형상화된 조형성이 돋보이고 밤에는 미디어로 표현된 빛자욱이 주변을 아름답게 비추어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한다.

조각상을 따라 걸어가면 ‘그랜드 플라자’가 보인다. 산책 동선과 어우러진 조형미 있는 캐스케이드형 수경시설이다. 단지의 품격을 높이면서 자연과 시설물을 감사하는 대규모 휴게시설 공간으로 조성했다.

그랜드 플라자 안에는 ‘커넥티드’라는 조각상들도 있다. ‘연결돼있는 공간의 결정체’라는 추상적인 심상의 작품이다. 공간의 레이어들이 결정으로 응축되고 연결돼 새로운 공간감을 만들어낸다는 스토리를 조형화하고 있다.

결정이 쌓여 있는 형태를 점선면으로 이뤄진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군집으로 작품에 리듬감과 무게감의 조화를 이룬다.

파운틴플라자(펄나무 숲)는 바닥분수와 운동 공간이 어우러져 계절에 따른 유연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외에도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주민회의실, 라운지카페, 실내놀이터, 비즈니스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다.

야외에는 근력,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세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기구와 테니스 코트 등도 마련했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코랄 아일랜드’와 ‘더 롤링 볼 타운’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6월 이라크 원정 바스라 개최...전세기 추진
▲‘아쉬운 헤더 경합’ 뒤편 김민재...인터밀란전 최저 평점 /사진 뉴스스

▲한국, U-17 아시안컵 우승 여정 계속...준결승서 사우디와 격돌
▲김혜성, 트리플A서 4타수 무안타 침묵...4경기 연속 안타 마감

▲SSG 랜더스 미치 화이트, 허벅지 부상 털고 첫 출격
▲이정후, 시즌 10호 2루타 ‘광’...이틀 연속 멀티 히트 행진